

쇠퇴한 광주 구도심, 스마트한 변신을 꿈꾼다

광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상> 시민안전-에너지 관리 시스템

지난해부터 광주광역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거점 스마트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AI 등 최첨단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광주 동구의 구도심을 재생시키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하나 둘씩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낙후된 도심의 노후 시설 교체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인프라들이 속속 구축되고 있다. 동구 구도심을 일대로 광주시가 추진중인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충전·거래 거점센터 'RE100 메가스테이션' 설계 완료 혁신공간 조성방향 연구보고서 발간...시민참여형 다양한 홍보 활동 펼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과 전국 확산을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광주시는 'RE10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도시 조성 확산 모델 구축'을 제안해 선정됐다.

당시 광주시는 동구 구도심이 안고 있는 교통(Mobility)·에너지(Energy)·환경(Green)·안전(AI) 등 4개 분야의 도시문제를 일명 MEGA 서비스로 해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2024년까지 광주시, 동구, 광주도시공사, 한화시스템(주) 컨소시엄 등 민·관이 협력해 스마트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

된 후 2023년 6월 실시계획 수립 및 국토부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조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이뤄낸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안전과 에너지 분야 서비스 구현이다.

지난해 12월 동구 금남로, 충장로 일대에 AI CCTV 등이 탑재된 스마트폴 14곳, 방범폴 8곳을 설치했다. 스마트폴은 치매노인·영유아 등 실종자나 강력범죄 수배자 발생 시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이동 경로 추적이 가능한 장비다. 취약계층 인구가 많은 동구 지역의 생활안전과 범죄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공공건물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관리 시스템 'City-EMS(Energy Management System)'을 도입했다. 동구국민체육센터와 동구문화센터 2개소에 설치된 City-EMS가 그것으로, 건물의 에너지 흐름을 모니터링해 에너지 절감 요소 분석과 전력 사용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주요 기술이다. 현재 노후화된 시설로 에너지 낭비가 많았던 이들 2개 건물은 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5%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



▲ '2023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 선보인 사족보행로봇.
▶ 광주 동구에 설치될 예정인 자원회수로는 사용자가 캔과 페트병을 기계에 투입하면 포인트 적립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충전·거래 거점센터이자 데이터 허브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RE100 메가스테이션'은 지난해 조성 방향을 수립하고 기본설계까지 마친 상태다. 지자체 최초의 에너지 거래소 역할을 수행하는 RE100 메가스테이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는 아시아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인 '2023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해 '스마트시티 광주관'을 운영했다.

션은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속될 예정이다. 태양열 냉난방시스템인 수축열조, 태양광 패널, 천장 등 친환경적 요소가 활용된다. 특히 태양광 패널의 경우 외경상 드러나지 않고 물결모양 지붕에 그 기능을 통합하는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설계됐다.

지난해 7월에는 혁신성장공간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RE100 메가스테이션 내에 조성하는 '광주스마트시티 혁신성장공간 조성방향' 연구보고서도 완성됐다. 광주도시공사 도시연구소가 주관한 이 연구에서는 창업가 및 창업지원기관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요를 반영한 조성 방향을 구체화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전남대학교 시스템보안연구센터에 의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 연구는 중간 보고회까지 마쳤다. 올해 안결되는 연구보고서는 스마트시티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및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의 중요 지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 만이 아니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필수요소인 홍보도 성과를 내고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성과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아시아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인 '2023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는 스마트시티 광주관을 설치 관련 기술, 솔루션, 제품 등을 전시 및 체험토록 했다. 특히 장애물이나 협박한 지형에서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 창업기업의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족보행 로봇이

시연해, 관람객들로부터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지역 축제에서는 홍보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을 알리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20회 광주 추석의 총장축제'가 대표적이다. 5일간 진행된 축제 기간동안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면 리워드를 받는 지능형 자원순환 수거기 체험 행사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 뒤를 이어 11월 개최된 '제4회 동구 청소년 인문축제'에서도 축제 개최 장소인 동구국민체육센터가 City-EMS 구축으로 인한 변화상을 소개했다.

이외 함께 시민들이 직접 홍보 전도사로 나서기도 했다. 실생활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시민서포터즈는 그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20~40대 14명으로 구성된 시민서포터즈들은 리빙랩 연구활동으로 동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들을 제공했다.

이들 가운데 사용자 관점에서 EV급속충전기 결제방식 추가를 제안한 아이디어는 사업자의 기능개발 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돼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서포터즈로 활동한 김다민 씨(22세)는 "어렵게 느껴졌던 광주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우리 도시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주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정민근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2023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인프라와 서비스 구현에 나서서 사업 진척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2024년에는 사업의 전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는 광주 스마트시티 조성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